

성명	김지유	수험기간	2023.03~2025.07.
학교	서강대학교	전공	화공생명공학
키워드	기득 차석 민소고득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2025년 시행된 변리사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한 62기 김지유입니다. 평소 수험생활을 하며 다양한 합격수기를 읽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에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수기를 남깁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87.5점	90점	70점

-민법- <점수: 87.5점>

【강의 및 교재】

저는 김동진 강사님의 강의와 교재로 공부하였습니다. 1차 법과목은 여러 책을 읽기보다는 하나의 기본서와 하나의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회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김동진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한 것이 1차 공부 중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 강사님은 방대하고 어려운 민법을 수험에 적합하도록 가장 쉽게 설명해주셨고, 혹여나 너무 과한 양을 공부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습니다.

【시기별 공부】

1~3월	4~6월	7~9월	10~12월	1~2월
-	기본강의 수강	민법공방 회독	민법공방 회독, 민 공연 문제풀이	회독, 문제풀이

저는 2023년 3월부터 1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학기와 병행하여 공부를 했고, 일주일에 이를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약 1~2달간은 민법만 공부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 집중해서 진도를 빠르게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김동진 강사님의 강의를 하루에 약 3일치씩 수강했습니다. 이후 2~3시간동안 배운 내용을 회독하여 복습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4월초에 기본강의를 모두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인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들어도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회독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종일 민법만 공부하여 회독을 진행한 결과, 첫 1회독에 약 7~8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민법 자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겼고, 암기량이 증가하여 자연히 회독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6월 이후로는 다른 과목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민법 공부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하루에 약 2~3시간동안 일정 분량을 회독하고 강사님께서 제공해주신 복습자료를 이용하여 학습 정도를 체크했습니다. 이후 민법공방연습이 출간되자마자 문제풀이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모든 문제를 풀었다가 점차 틀린 문항 위주로 범위를 줄였습니다. 3회독을 한 사이클로

하여, 3번 중 한 번이라도 틀린 문제에 형광펜을 칠한 뒤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때 책에서 본 적 없다고 생각한 내용이나 알려다도 자주 잊어버리는 문항은 따로 포스트잇에 가필하여 민법공방 책에 붙여두었습니다.

민법공방 및 민법공방연습 회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이후에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때 틀린 문제들 또한 포스트잇에 적어서 함께 회독했습니다.

【회독 방법】

민법 과목 자체의 양이 방대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강사님이 표시해 주신 밑줄 부분을 집중적으로 회독하되, 그 외의 부분은 시간이 날 때 간단히 읽어보는 정도로 대신했습니다.

민법공방 회독은 회독 범위를 점차 늘렸다가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을 민법에만 투자해도 회독에 1주일이 넘게 걸렸으나, 점차 속도가 붙어 나중에는 하루 2-3시간 회독 시 5일만에 1회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회독과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눈으로 읽고 뒤에 나올 내용을 머리로 예상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민법공방연습 회독은 전술한 대로 3회독을 한 사이클로 했습니다. 얇은 판으로 정답을 가린 뒤 머릿속으로 O,X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고, 틀린 문제는 문제 번호 옆에 X표시를, 맞았으나 논거가 확실하지 않은 문제는 세모 표시를 해두고 완전히 맞은 문제에만 O표시를 했습니다. 이후 3회독 중 하나라도 X나 세모 표시가 있는 문제에 형광펜을 칠해 따로 풀었고, 그 중에서도 틀린 문제들을 점점 더 진한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중요도를 구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4종의 형광펜을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그 문제들만 순서를 두어 풀었습니다. 회색-하늘색-초록색-붉은색 형광펜 순서대로 중요도를 높였는데, 시간이 지난 결과 회색 준위의 문제들은 이틀 이내에 회독이 가능했고, 하늘색 이상 준위의 문제는 모두 하루 안에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다고 생각했던 채권자취소권이나 저당권 계산문제 등은 따로 두어 1주일에 한번씩 몰아서 풀었습니다.

민법 회독은 정독에서 속독으로 빠르게 넘어갔고, 그에 따라 회독 속도 또한 빨랐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일까지 민법공방, 민법공방연습을 약 12회독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법Tip】

~ 민법 공부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이 많고 휘발이 빠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회독이 틀어지면 잊어버리는 부분이 생겼고,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끊기는 날 없이 회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너무 많은 범위를 커버하려고 하기보다는, 중요도를 설정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달리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0점>

【강의 및 교재】

~ 특허법, 상표법은 타 학원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고, 디자인보호법은 김웅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민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법 모두 하나의 기본서와 하나의 문제풀이서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특허법】

~ 특허법은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강의, 조문강의, 판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5월 즈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기존에 배우던 민법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과 형식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강의를 수강할 때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출원 과정과 그에 대한 조치,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까지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머릿속에서 뒤죽박죽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마인드맵이었습니다. 과목의 단원명을 하나의 대목차로 잡고, 그 아래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구조화했습니다. 처음엔 잘 알지 못하면서 마냥 따라

적었던 마인드맵이 내용 이해와 흐름 암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문과 요약서가 결합된 작은 책을 구매하여 회독했습니다. 1차 특허법은 조문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적어도 이틀에 1회독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조문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된 기간, 주체 등에 구멍을 뚫어 혼자 암기 내용을 시험해보기도 했습니다.

문제풀이는 민법과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하나의 객관식 문제풀이서를 사서 선지별로 O,X를 판단했고, 틀리거나 어렵다고 느낀 선지는 따로 표시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주 헛갈리거나 틀린 선지는 빈 종이에 따로 적어두거나 회독한 조문집 귀퉁이에 적어서 함께 외웠습니다.

【상표법】

상표법 또한 타 학원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한 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회독했습니다. 상표법은 특허법과 꽤나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조문에 대한 자잘자잘한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메인 이 되는 33조 1항, 34조 1항 조문들은 백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외웠습니다. 또한 상표법 자체를 암기하기보다는 특허법을 기준으로 하여 차이가 되는 부분이나 상표법에만 존재하는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뤄 분량을 줄였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따로 구해 풀기보다는 기출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구한 뒤 선지별로 정오를 판단하였고,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문을 조금씩 바꾸어 내는 문제가 많아서, 조문별로 장난을 많이 치는 부분을 따로 모아 외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김웅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특유디자인과 같이 디자인보호법에만 존재하는 개념을 익히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타 과목과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분량의 기본서를 회독하고자 했고, 진도별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암기량을 늘렸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0점>

【강의 및 교재】

물리,화학,생명과학 과목은 타 학원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고, 지구과학 과목은 박준희 강사님의 기본강의와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물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연과학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완강할 수 있는 핵심강의를 선택하고, 기본서를 빠르게 암기하고자 했습니다. 물리 과목은 공식을 외우면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공식집을 따로 만들고, 구멍을 뚫어 혼자서 매일매일 공식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평소에 물리 문제를 잘 풀어내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가 꽤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단원별로 일관된 풀이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단원에서 어느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매우 세세히 정해 두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화학】

화학 또한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핵심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문제를 모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비교적 쉬운 암기형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화학 과목은 문제 간 난이도 편차가 크고, 시간을 크게 잡아먹을 수 있는 만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공부량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물】

고등학생 시절부터 생물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생물을 주력과목으로 삼았습니다. 타 학원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생물은 반드시 고득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양의 문제풀이를 진행했고, 틀리는 문제 및 선지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했습니다.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박준희 강사님의 강의와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지구과학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해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의 수강 이후 기본서 뒤쪽에 있는 요약서를 중심으로 회독했고, 최근 15-20년간의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천체와 같이 계산이 필요한 단원은 비중을 낮게 다루었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암기 단원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1차 시험 준비 기간에는 저만의 루틴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14-15시간씩 공부를 몰아서 하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10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침대에 눕는 시간까지 모두 통일하여 저를 통제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기 위해 커피 마시는 시간, 영양제 먹는 시간까지 미리 정해두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한 과목별로 목표한 공부시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과목을 하루에 한 번씩은 공부했고, 시험 6개월 전부터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전부 정해서 그 안에서만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너무 부족한 과목 없이 과목별 공부 정도가 균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

체력이 평소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를 집에서 먹고 조금 쉬다가 다시 공부를 하러 나왔습니다. 또한 주 1회는 늦잠을 자서 모자란 체력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운동은 러닝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포기했습니다.

【문제풀이 방법】

1차 시기에는 전 과목 모두 동일한 문제 풀이 루틴을 가져갔습니다. OX문제집의 경우에는 문제별로, 객관식 문제집의 경우에는 선지별로 정오를 판단했습니다. 이때 손으로 적기보다는 눈으로 훑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빠르다고 느껴져 손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틀리거나 어려웠던 문제 및 선지에 따로 표시를 하고, 이후 표시된 문제들 위주로 다시 문제를 풀며 범위를 줄여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회독 속도 및 횟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64점	58.33점	60.66점	61.33점

-민사소송법- <점수: 64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저는 동차 시절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수강했고, 그 이후에는 GS를 수강했습니다.

▪ 교재

저는 통합 기본서와 사례집으로 공부했고, 특히 사례집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타 학원 GS	이창한 실전A	타 학원 GS	이창한 실전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동차 기간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두 강의 모두 전년도 강의를 수강했고, 그 결과 3월이 지나기 전에 두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혼자서 사례집을 회독하며 민사소송법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의 학판감을 외워 보기도 하고, 헛갈리는 논점은 패드에 간단히 적어가면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2차 시험을 위한 공부와 1차 시험을 위한 공부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빈 답안지에 암기한 내용을 모두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례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하루에 60~80점분량 정도로 따로 뽑아 통암기를 진행하고 답안지에 그대로 현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혼자 4~5월을 보내고, 6월부터 친구와 사례집에 있는 논점에 대한 학설/판례/검토를 외우는 말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논점을 알면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확실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를 읽고 어떤 논점을 적는지’, 즉 주소 설정에 대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읽고도 어느 내용을 써야 하는지 몰라 논점 이탈이 매우 잦았고, 좋은 답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창한 강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했으나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기득 기간

동차 시험 이후 9월부터 기득 시절을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학기와 병행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공부량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학기 종강까지는 암기나 문제풀이보다는 사례집 회독에 집중했고, 내용에 익숙해진 뒤 속도를 높리며 회독 횟수를 올렸습니다.

종강 이후 GS시즌 이전까지는 기출문제와 동차 시절 들은 수업의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회독량을 줄이는 대신 암기량을 올려 판례 현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주중에는 논점 찾는 연습 및 사례집 암기를 진행했고, 주말에는 기출문제 또는 동차 시절 시험지들로 풀답안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틀리거나 처음 본 논점은 모두 포스트잇에 적어서 사례집에 붙여 두고 함께 회독했습니다.

GS시즌에는 암기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판단해서, 사례집을 빠르게 읽어 휘발되는 양을 줄였습니다. 매일 사례집을 일정한 회독하고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동차 시절 문제지들의 목차를 잡으며 논점 찾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시기부터 개정법이나 최신 판례 등을 새로이 배웠고, 따로 모아서 한 번에 암기했습니다. 다양한 GS를 풀었는데, 이때 자주 틀리거나 처음 보는 논점은 모두 포스트잇에 자세히 적어 사례집에 붙이고 함께 회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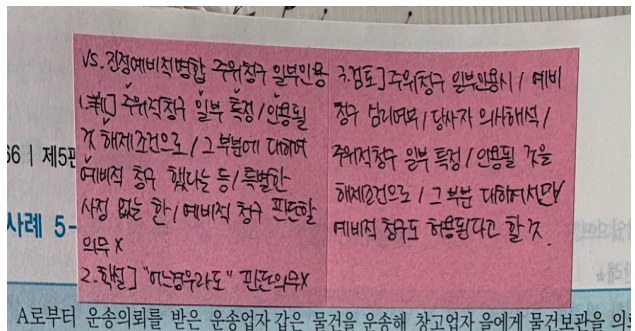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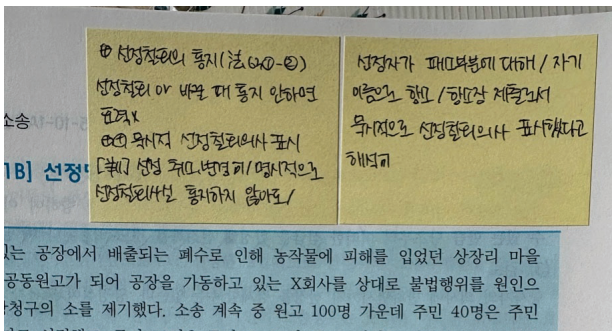
시험 전날에는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암기되었다고 판단하여, 붙여둔 포스트잇 위주로 마지막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책이 아닌 포스트잇들만 따로 모아서 가져가 읽었습니다.

[회독 방법]

저는 기본서가 아닌 통합 사례집을 집중적으로 회독했습니다. 기득 시절, 공부 초반에는 많은 내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회독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다시 기억날 때까지 하루에 약 50-100페이지만을 매우 느리게 읽고 이해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에 50페이지를 읽는 데에도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서서히 동차 시절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났고, 그에 따라 회독 속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례집 내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부터(약 11월 즈음부터로 기억합니다.) 속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책을 펴두고 멍하니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분마다 한 번씩 알람이 울리는 영상을 틀어두고 공부했으며, 적어도 그 시간 전에는 한 장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회독 속도에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대목차를 읽은 뒤 소목차 및 내용을 머릿속에서 예상하는 방식으로 회독과 암기를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통암기와 현출에 집중한 2-3개월간을 제외하면, 2차 시험 전까지 주중에는 매일 하루에 사례집 1/2에 해당하는 양을 읽었고, 적어도 일주일에 사례집 2회독은 완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목 특성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논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독 자체는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전 범위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통합 기본서 회독은 비중을 낮추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짚어 주신 밑줄 부분만 가볍게 읽어 보았고, 주에 1회독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은 어렵거나 사례집에 없는 논점을 적어 둔 것입니다.



[암기 방법]

동차 시절 가장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주소 설정을 가장 먼저 외웠습니다.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일반 석명권/지적의무 등 헛갈리기 쉬운 개념은 어느 사안에서 어느 개념이 사용되는지 표로 비교하여 정리했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기관력과 같이 다양한 논점으로 이어지는 개념은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구조화했습니다.

암기와 현출은 2-3개월 이내 집중적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일반 학판검은 눈으로 읽기-가리고 머릿속에서 떠올리기-손으로 현출하기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짚어 주신 문제는 따로 패드에 논거와 결론을 적어 두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적어 손이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때 두문자를 적극 사용했는데, 이미 책에 있는 두문자뿐만 아니라 너무 길거나 한 번에 외워지지 않는 문구는 대부분 두문자를 따서 사례집 여백 공간에 적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긴 호흡의 문장을 높은 정확도로 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례집에는 없으나 통합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GS시간에 기출된 논점들, 최신 판례 등은 따로 포스트잇에 가필해 두고 사례집에 붙여서 함께 외웠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 회독 시 포스트잇을 가리고 혼자서 내용을 읊은 뒤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암기 강도를 높였습니다.

-특허법- <점수: 58.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저는 박형준 강사님의 판례강의를 수강했고, 이후 GS를 수강했습니다.

▪ 교재

기본서는 타 강사님의 교재로 공부했고, 박형준 강사님의 준특허법 판례집을 이용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박형준 기초GS	박형준 실전A	-	-	박형준 실전B

【시기별 공부】

▪ 등차 기간

등차 기간에는 민사소송법 강의를 들은 이후 4월부터 2차 특허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허법은 1차 시험에서 이미 공부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나, 1차와는 너무나 다른 공부량과 공부 방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쫓기듯 공부했고, 판례 문구 중 강사님들이 짚어 주신 두문자들만 겨우 암기했습니다. 답안 흐름과 사안포섭 등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GS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고, 등차 시험 또한 과락으로 마쳤습니다.

▪ 기득 기간

등차 시험 이후 9월부터 기본서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적, 정신적으로 여유를 갖고 과목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작은 범위부터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종강 이전까지 하루에 약 100페이지 정도를 1~2시간 내에 회독하고, 주에 1회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회독을 반복하다 보니 법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내용이 익숙해졌습니다.

종강 이후에는 박형준 강사님의 판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등차 기간동안 기본서만을 읽었고, 그에 따라 어떤 판례가 어떤 사안에서 적용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례강의는 기득 기간 중 특허법 실력이 크게 향상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판결요지만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사안에서 어느 논점이 문제되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우며 답안에 대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판례는 모두 사실관계와 쟁점, 결론을 기본서에 가필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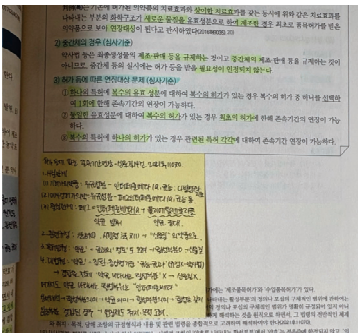
이때 박형준 강사님의 기초GS도 함께 수강했는데, A급 논점들이 큰 배점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중요 논점을 누락없이 적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이때 박형준 강사님의 답안 형식과 사안 포섭 방법을 많이 배웠고, 이와 최대한 비슷하게 적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실전GS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했으며, 기본서에 없는 최신판례나 학계 논의, 자주 누락하는 판례 등은 전부 포스트잇에 적어 당일 외운 뒤 기본서에 붙여 두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따로 강의나 GS등을 수강하지 않고, 혼자서 자주 틀리는 논점, 최신 판례, 중요하다고 생각한 쟁점들 위주로 암기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동안 풀었던 GS의 목차를 잡고 풀답안을 다시 작성하면서 손의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회독 방법]

특허법은 기본서-판례암기자료-총알자료 순서로 매일 회독했습니다. 기본서는 기득 초반에 이해를 위해 조금씩 회독하던 것을 제외하면 매일 전체의 절반 분량을 읽었고, 나머지 자료는 전체 분량을 1/4로 나누어 주에 1회독을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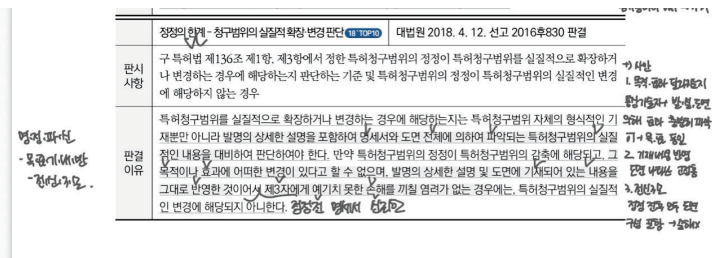
기본서는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중요한 판례 위주로 빠르게 읽어나갔습니다. 이 때에도 회독이 진행됨에 따라 대목차를 읽은 뒤 속으로 소목차와 내용을 미리 떠올려 보는 방식으로 회독과 암기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판례집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판례와 GS에 나온 논점 중 기본서에서 보지 못한 논점들은 모두 기본서에 적어 두었고, 이는 1회독 시 2-3번씩 반복적으로 암기해서 확실하게 제 것이 되도록 했습니다. 총알자료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만 따로 하이라이트를 쳐 둔 뒤 그 부분만 회독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중요 판례를 포스트잇에 가필해 기본서에 붙여 둔 것입니다.



[암기 방법]

암기는 기본서와 판례암기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두문자를 적극 활용했는데, 강사님께서 짚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호흡이 길다고 느껴진 판례들은 모두 두문자를 따 두었습니다. 또한, 논거가 여러 개인 판례나 흐름이 명확한 판례는 순서를 적어 흐름을 타서 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판례의 판결요지 및 중요한 논거만 묶어 놓은 판례암기자료를 이용했습니다. 판례 문구의 왼쪽 여백에는 두문자를 적어 두고, 오른쪽 여백에는 판례에서 사안에 적용한 논리를 적어두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적어도 주 1회 이상 회독했고, 끊겨서 휘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읽었습니다. 이를 모두 한 번에 암기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왼쪽 여백의 두문자를 읽으면 판례의 내용과 사안포섭 방법이 모두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자료로 꽤나 많은 암기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효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적어 두고 암기했습니다.



-상표법- <점수: 60.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저는 타 학원 강사님의 강의 및 GS를 수강했습니다.
- 교재
교재 또한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서와 판례집으로 공부했습니다.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	타 학원 GS	타 학원 GS	-

【시기별 공부】

- 등차 기간
등차 기간에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마음에 쫓기듯 공부했으며, 판례조차 제대로 암기하지 못했습니다.
- 기득 기간
특허법과 상표법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기득 초반부터 기본서를 회독했고, 속도를 높여 회독수를 올렸습니다. 이후 두문자를 따서 암기하고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은 포스트잇을 활용했습니다.
GS를 들으면서, 조치 문제 시 무효사유 및 취소사유의 누락이 잦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문제 풀이 생각해야 하는 논점의 흐름을 사전에 정해 두고, 그에 따라 문제를 정형화된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회독 방법】

회독 방법 또한 특허법과 동일합니다. 분량을 정해 두고, 적어도 주에 2회독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상표법은 유사한 법리가 다양한 사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본서는 비교적 간단히 외운 반면 판례집 회독에 힘썼습니다. 판례집에서 각 사안마다 유사한 법리가 어떻게 달리 적용되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지 집중해서 판례집을 읽었고, 판례마다 사안 포섭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은 따로 표시해 외우려고 했습니다.

【암기 방법】

암기 또한 요약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상표법 판례 요약자료는 각 판례 사안마다 쟁점과 판결 요지를 모아둔 형태를 이용했습니다. 판례를 타겟팅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판례는 어떤 쟁점이 문제되고 어떤 결론이 이끌어지는지를 모두 외우려고 했습니다. 또한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사안 적용과정을 모두 암기자료에 가필하여 함께 외웠습니다. 판결 요지 및 법리는 타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두문자를 따서 정확한 현출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점수: 61.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저는 김웅 강사님의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 교재
교재는 이준권 강사님의 지인 디자인보호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	-	-	김웅 실전GS

【시기별 공부】

- 등차 기간
시험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있는 교재 중 가장 얇은 기본서를 선택했고, 4~5월부터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서가 얇았기 때문에 30분만에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을 수 있었고, 회독 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암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위주로 편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6월부터 김웅 강사님의 GS를 수강하며 어느 논점에서 어느 부분을 적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 부분을 강조하여 암기했습니다.
- 기득 기간
기득 기간에도 4월 중순부터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과목의 공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간단히 기본서를 읽는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등차 시절과 동일하게 주중에 하루 30분씩 기본서의 절반 분량을 읽었고, 암기를 하기보단 편한 마음으로 읽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이후 김웅 강사님의 실전GS를 온라인으로 수강했고, 풀답안을 작성하기보다는 간단히 목차만 잡은 뒤 목차에 해당하는 답안지 내용을 기본서에서 찾아내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외웠습니다. 이때 김웅 강사님의 중요 판례 자료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정 판례를 타겟팅해서 문제가 나오는 과목 특성상 판례 사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데, 가장 중요한 판례를 선별해 주셔서 집중해서 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비유사, 침해/비침해 등의 결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판례에서 대상이 되는 디자인을 보고 바로 결론을 떠올릴 수 있도록 혼자서 퀴즈 자료를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공부 방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GS에 나온 판례와 암기자료 중 어렵게 느껴지는 판례 중심으로 회독했습니다.

【회독 방법】

디자인보호법은 회독 시 힘을 빼고 읽었습니다. 주로 피곤할 때 공부했기 때문에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로만 회독을 했습니다. 전술한 대로 얇은 기본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많은 회독수를 가져갈 수 있었으나, 이를 통해 내용을 정확히 암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암기 방법】

암기는 김웅 강사님의 GS자료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서를 통해 내용 이해는 했으나 암기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GS시험지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풀답안을 작성하는 대신, 문제를 읽고 논점만 간단히 잡은 후 내용은 강사님의 답안을 보고 외웠습니다. 또한 강사님께서 제공해주신 중요 판례자료를 읽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암기했습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2페이지	약 25자	1.목차 사이에 엔터X	세로 폭의 1/2 정도
특허법	21페이지			
상표법	19페이지			
선택과목	16페이지			

【글씨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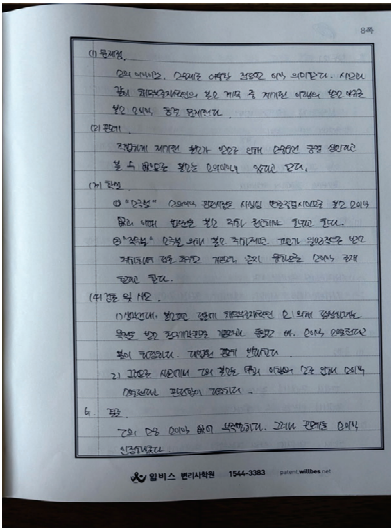
평소에 글씨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글씨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음을 크게 적는 것이 답안 가독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 조금 신경썼습니다. 띄어쓰기를 크게 하는 것도 가독성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용한 펜】

동차 시절 다양한 펜을 구매해서 필속과 손의 감각을 시험해 보았는데, 제트스트림 0.7이 가장 좋았습니다. 뜯은 직후의 펜은 펜촉이 거칠어서 필속이 잘 나지 않았으므로, 시험장에서는 약 5-6페이지를 적은 후 상태의 펜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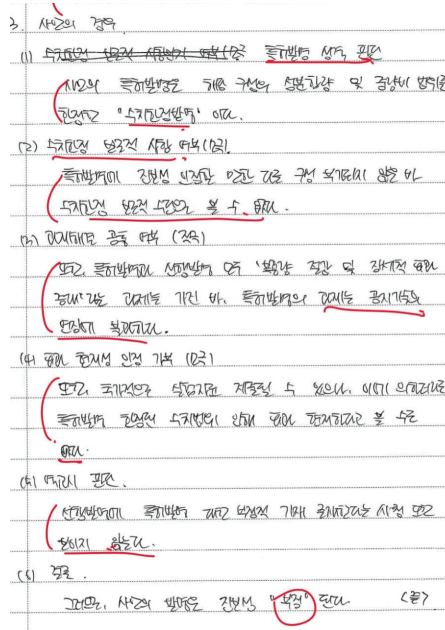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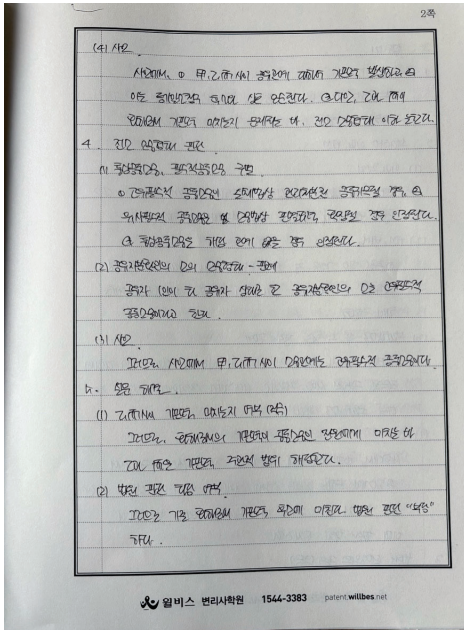
답안은 다른 수험생들과 크게 차이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들어쓰기를 할 때 첫 줄이 아닌 본문 전체를 동일하게 들여써서 목차와 내용의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신경썼습니다. 또한 사안포섭 시 줄글로 늘어쓰기보다는 논점별로 분설하여 양을 늘리는 동시에 가독성을 올렸습니다. 문장 사이에도 흐름이나 종류가 있는 경우에는 라벨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사진은 민사소송법 GS시 작성한 답안입니다.



【과목별 전략】

과목별로는 사안포섭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논점 간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논점별로 사안포섭을 적어 주고, 말미에 다음 논점을 간단히 언급하는 방식으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특허, 상표 과목은 침해/심판 인용 등에 대한 요건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안포섭을 대목차로 잡고, 요건과 쟁점을 소목차로 잡아 사안을 적었습니다. 또한 세 과목 모두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

안포섭에서는 판례 문구와 논리를 많이 차용해서 적어주었습니다. 아래 답안은 민사소송법과 특허법 과목에서 각각 사안포섭을 달리한 것입니다.



-기타-

【시간 관리】

수험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아침잠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피곤하면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대신 다른 자투리 시간을 줄였습니다. 공부 장소인 스터디카페와 휴식을 위한 집을 철저히 분리했고, 집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탓에 스터디카페에 있는 시간 자체는 줄이는 대신 그 안에서 최대한의 공부시간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많이 줄였는데, 보통 점심을 20분 이내로 먹고 저녁은 빵이나 과자 등을 들고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낮잠이나 산책은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피곤할 때는 그냥 일어서서 공부했습니다. 보통 9시에 스터디카페에 도착하고 오후 10시 30분에 집으로 출발했는데, 주중에는 거의 항상 12시간 이상의 순수 공부시간을 얻었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체력 관리는 시험 직전까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쉬면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기 때문에, 주말에 GS가 끝나면 복습하고 바로 귀가했습니다. 운동이나 다른 것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멘탈에 대하여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저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야구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항상 야구를 틀어놓고 공부했습니다. 시험 준비 중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불안해질 때가 많았는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한 친구에게 전화로 하소연하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공부 장소】

주중에는 집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했고, 주말에는 현장 GS를 수강했습니다. 공부 장소와 휴식 장소를 명확히 분리했기 때문에, 공부 장소를 벗어나면 책을 한 글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스터디】

동차 기간, 약 한 달 동안 친구와 생활 스터디 및 민소 말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상당히 나태해져 있었는데, 스터디를 통해 필요한 암기를 진행하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서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기득 기간에는 따로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공부했습니다.

【휴식】

전술한 대로 주로 주말 GS이후에는 쉬었습니다. 다만 틀린 논점이나 모르는 내용은 모두 암기한 뒤에 휴식했습니다. 기득 초반에는 월요일 오전까지 늦잠을 잤으나,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져 주중에는 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월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1차 과목 중에서는 김동진 강사님의 민법 기본강의를, 2차 과목 중에서는 박형준 강사님의 판례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진 강사님의 수업은 제게 1차 과목을 준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법과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당한 양으로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감을 익힐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박형준 강사님의 판례 강의는 2차 산재법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어느 판례에서 어느 문구가 어떤 논리 과정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실제 없이 동등 떠있다고 느꼈던 판례 문구들의 뿌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2차 민사소송법 과목의 고득점 비결】

민사소송법은 논점 간의 흐름이 좋은 답안지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주소 설정 및 내용을 모두 암기한 뒤에는 답안지에 사례집 내용을 그대로 바르되, 더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논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어떤 순서/어떤 흐름으로 논리를 전개할 때 더 자연스러운 답안을 만드는지 고민했던 시간이 민소 고득점을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례집이나 GS답안에 비해 사안포섭을 논점별로 세밀하게, 많은 분량으로 가져간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설 또한 타 과목에 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판례와 학설을 6:4정도의 비율로 암기했고, 학설 논거 또한 최대한 사례집과 동일하게 현출되도록 했습니다.

마치며

감사의 말

우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2차 시험을 치르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옆에서 무조건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여 준 부모님과 친언니, 지지하고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찾아와 정서적인 교류를 주고 언제나 하소연할 수 있도록 해 준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를 응원했던 친구들, 함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합격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준 대학 친구들에게, 가장 큰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맺음말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수험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불안한 미래에, 한심한 자신에 울면서 집에 돌아가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좌절하실 때도 있고, 방황하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시간에 무너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온 본인을 믿고, 어제보다 반걸음이라도 발전한 본인을 칭찬하며 단단히 나아가시기를 감히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